

오피니언

사설

국시 재응시는 고집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중단됐다. 동맹휴학에 참여했던 우리대학 의과대 학생들도 휴학 취소 절차를 밟았다. 앞서 의정 합의가 이뤄지면서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이어 학생들 역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온 것이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휴학 취소 과정을 보면 대학은 의대생의 단체행동 중단을 받기는 눈치다. 휴학이 지속될 경우 예상됐던 내년 학사운영에서의 어려움을 한시름 덜은 까닭이다. 전공의 복귀와 휴학 철회로 의료계가 일견 안정 국면에 접어드는 듯 보이지만, 아직 의사 국시 추가 응시 문제가 남아있다.

의료계는 의정 갈등 마무리의 실마리를 의대생 휴학 취소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국시 추가 응시에서 찾는다. 휴학 취소의 경우 우리대학과 마찬가지로 각 대학이 빠르게 승인하는 추세지만 국시는 상황이 다르다. 정부는 공정

성과 형평성의 문제로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가 주관 시험에서 수험생이 응시 거부 후 접수 기간이 지나 재응시를 허용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게다가 정부는 의대생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미 국시 일정을 한차례 연기한 바 있어 더 이상의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사자인 의대생 의사 없이 재응시 추가 기회를 검토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의대생들이 스스로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단체행동을 결의했던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국시 응시자 대표들은 단체행동 유보를 밝혔지만 국시 응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의료계는 국시를 치르는 당사자인 4학년 학생들이 단체행동 중단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사실상 국시 재응시의

사를 밝힌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현재 의대협은 집단행동 중단이 국시에 재응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당사자의 의견 개진을 요구하는 정부와 국시 재응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의대협 간의 눈치싸움으로 국시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국내 의사 수련체계 혼란과 신규 의료 인력 수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제2의 의료공백 사태가 예고된 셈이다.

그러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면 의대생들이 명확한 재응시 의사를 밝혀도 정부가 재응시를 허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 여론이 차가운 까닭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를 반대한다는 게시물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

서 의료공백을 초래한 의료진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읽힌다. 국시 재응시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여당 정치인들도 다른 한편으로는 의대생들의 반성과 사과를 강조하며 국민 정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의료공백과 공정성·형평성 문제 충돌, 차가운 국민 여론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 다음은 국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다. 의료공백으로 심화된 의료계와 정부,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낯선 구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도에서다. ‘더 나은 의료와 국민의 건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의료계에 대한 신뢰 회복은 필수다. 갈등은 화해를 동반할 때 돈독한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 화해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제한다. 의료계의 국민 건강 달성을 위한 행보에 두 번의 실수가 생기지 않길 기대해 본다.

세시봉

마지막 언급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지난 10일 MBC에서 ‘설리가 왜 불편하셨나요’가 방영됐다. 방송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다. 고인의 과거 연애사와 그로 인한 영향이 재조명되자, 전 남자친구를 향한 악플 테러가 발생한 것이다. 한 네티즌이 고인의 어머니를 저격하기도 했다. 논란은 ‘누가 진짜 고인을 괴롭게 만든 가해자인가’를 밝히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서로를 가해자라고 지목하고 화살을 돌리며 전쟁은 지속됐다. 결국 MBC측은 “제 2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우려해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어쩌면 진짜 가해자는 특정 개인이 아닌 사회 분위기 전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리는 근 몇 년간 엄청난 관심을 받았고, 그에 따른 수많은 폭언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악플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연예인이 고인이 된 이후에도 악플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는 이 상황은 아이러니하기만 하다. 인터넷상에서도 고인을 성숙한 태도로 보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모니터를 통해 비치는 인터넷상에서의 우리 모습을 거울을 보듯 돌아켜보아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기술 측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뤘고, 인터넷상의 세계가 확장되며 20년 전 인터넷 예절을 칭하는 ‘네티켓’이라는 용어도 생겼다. 안타까운 건 네티켓은 인터넷 발전 속도를 전혀 따라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요즘 초등학생에게 “성격유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현실에서요, 아니면 인터넷상에서요?”라고 되물어본다고 한다. 인터넷과 현실에서의 인격이 다르다는 사실이 보편화된 것이다.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도 있지만, 어른들이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버린, 제대로 ‘청소’하지 못한 인터넷 속 관행이 이런 결과를 낸 것이다. 현실 속에서는 대부분 예의와 배려를 지키려 하지만, 온라인 속에서는 다르다. 그 괴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끝내 묵숨까지 잃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티켓 교육이 절실하다.

세상을 떠서도 다시 한 번 언급하게 된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 씨에게 사과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는 고통 없이 편히 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길고양이 돌봄 사업

우리 안의 고양이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주말 아침이 되면 동물 이야기를 다루는 TV 프로그램을 본다. 이야기는 동물이 어쩌다 도시에 오게 됐는지 사연을 찾아 나서는 것으로 시작된다. 방송에 등장하는 행인은 동물이 왜 사람들이 사는 건물에까지 이르렀는지 희한한 일이라며 말을 이어간다. 아마도 그의 말은 도시의 주인이 당연히 사람이라는, 우리 모두의 일상적인 생각에서 나온 반응일 것이다.

모든 동물이 함께 누리던 공간이 언제부터 사람들의 영역이 되었을까. 고양이들의 이야기를 취재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스쳤다. 캠퍼스를 누리는 ‘우리’에 이곳의 동물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 혹은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밀어낸 사람들에게겐 밀려난 동물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은 이 공간이 처음에도,

지금도 사람들만의 공간이 아님을 인정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동물을 ‘우리’에 가두고 종을 보존하는 일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동물과의 공존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일상의 공간에서 마주한 동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고, 배워야 한다. 우리학교가 ‘생명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길고양이 돌봄 사업에도 마찬가지로의 가치가 담겨 있었다. 지역 사회의 민원을 이유로 학교가 사업에서 한발 물러선 지금, 고양이는 다시 캠퍼스의 일부가 아닌 배제의 대상이 되었지만 말이다.

간디가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알 수 있다”는 말을 남겼을 때, 그는 동물과의 공존이 곧 생명에 대한 존중과, 윤리 수준을 보여주는 일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같은 이유로 이 작은 동물을 대하는 학교와 구성원들의 태도가 곧 학교의 정신을 엿보는 통로가 된다. 경희의 외연이 적어도 이 눈앞의 생명에 닿기를 소망해본다.



만평 공존과 배제 사이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김지원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송디자인 | 인쇄 옴니퍼먼디